

# 공부 잘 하려면 스마트폰 멀리하라

### ■ 중학생 1968명에 물어보니

## 공부 방해꾼으로 여학생 '채팅'·남학생 '게임' 꼽아 요점정리 잘하는 여학생 저녁시간 학습집중도 높아

중학생들의 시험 공부를 방해하는 주범은 '게임'과 '채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말고사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남학생의 경우 '게임', 여학생은 '노래방'이었다.

1일 비상교육의 중등 종합학원 브랜드 '비상아이비츠'(www.ivyzt.com)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중학생 1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험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의 49.2%(969명)가 문자나 카톡 등 '모바일 채팅'을 꼽았다.

하지만 남학생의 53.3%(603명)는 '게임'이나 인터넷을 가장 큰 방해꾼으로 답했다. 반면, 여학생은 67%(560명)가 '모바일 채팅'을 꼽아 공부를 방해하는 유혹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게임이나 인터넷 다음으로 줄임(36.7%), 모바일 채팅(36.1%), TV(34.2%), 친구들 약속(24.2%), 부모님 잔소리(19.6%) 등을 방해요인으로 들었다.

2%, 친구 약속(24.2%), 부모님 잔소리(19.6%), 수행평가나 과제물 준비(14.9%), 이성친구(10%) 등을 방해요인으로 들었다.

여학생은 모바일 채팅에 이어 줄임(51.2%), TV(45.3%), 친구 약속(26.3%), 수행평가나 과제물 준비(24.9%), 게임이나 인터넷(24.3%), 부모님의 잔소리(19.7%), 이성친구(7.7%) 순이었다. 여학생들은 게임·인터넷보다는 TV의 유혹이 크고, 남학생보다 학생부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남학생의 43.4%(491명)가 '게임'과 인터넷을, 여학생은 48.7%(407명)가 '노래방'을 꼽아 여가활동에서도 뚜렷한 선호도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률에서는 '노래방'(29.4%)이 '게임'과 '인터넷'(26.6%)을 근소하게 앞섰

### ■ 시험공부 방해 요인(복수응답 가능(단위 : %))

남학생	순위	여학생
게임·인터넷 53.3	1위	문자·채팅(카톡 등) 67.0
수면부족·줄임 36.7	2위	수면부족·줄임 51.2
문자·채팅(카톡 등) 36.1	3위	TV 45.3
TV 34.2	4위	친구들 약속 26.3
친구들 약속 24.2	5위	수행평가·과제물 24.9
부모님 잔소리 19.6	6위	24.3 게임·인터넷
수행평가·과제물 14.9	7위	19.7 부모님 잔소리
이성친구 10.0	8위	7.7 이성친구

고, 이어 '잠을 싹쓸 잔다'(10.7%), '딱히 없다'(9.2%), '영화나 콘서트 보러 간다'(8.9%) 등이었다.

하루 중 공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때는 '수업시간'(53.8%)이었다. '저녁 늦게 또는 새벽녘'(23.8%), '수업 시간 중 몰래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10.7%),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5.2%),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쪼뼘이'(4.8%) 등이 뒤를 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18.3%)에 비해 3학년(28.1%)이 '저녁 늦게 또는 새벽녘'에

공부가 잘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늘고 난이도가 높아져 수업 시간에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면서 방과 후 저녁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학생(31.3%)이 남학생(18.3%)보다 '저녁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방과 후에 노트필기나 요점정리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기록해두는 여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진학교사들과 함께 하는 대입 성공 프로젝트

### 학생부 성적과 비교 수시·정시 판가름 여름방학 부족 영역 보충 마지막 기회

#### ④ 6월 모평 의의와 활용법

6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수능 출제경향이나 난이도가 반영될 뿐 아니라 실제 수능을 치를 수험생 대부분이 응시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월 모평은 재학생의 경우 상위권에서는 성적이 하락하고, 중하위권은 성적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이 재학생만 응시하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제외되었다가 6월 모의평가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6월 모평 결과에 의해 지원 대학 좁혀지고 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예측

한다. 둘 다 성적이 비슷한 학생이라면, 수시와 정시의 목표 대학을 비슷하게 맞추고 균형을 잡는 전략을 짜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예측하라

지원 가능 대학, 즉 본인의 목표 대학이 좁혀지고 나면 그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혹시 점수가 모자라는 영역이 있다면, 향후 학습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하지만, 점수의 차이가 크다면 목표 대학을 수정해 본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백분위를 4~5점만이라도 확실히 올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막판 스퍼트를 올리자. 수능최저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

▲수능 이후의 수시는 없다. 수시 지원 계획을 서두르자

올해는 수시 원서접수 시기를 '수시 1차', '수시2차'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다. 수능 이후에는 수시 지원이 불가하다. 때문에 미리미리 모평 결과를 활용해 수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유웨이 이만기 평가이사는 "올해는 수시통합으로 원서접수 시기별 경쟁률·합격선 차이가 다소 생길 수도 있다"며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 실시 전형에 많은 수험생 몰릴 것 또한 예상되고 재학생들은 수시 인정 지원 경향을 특목고, 재수생 등 수능 우수자의 정시 올인 현상이 두드러질 것도 예상되니 어떤 전형으로 수시에 지원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금같은 여름방학, 그 기회를 100% 활용하라

6월 모평 이후 기말고사까지 마친 한 달 남짓의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고3에게 여름방학은 황금같은 시간이다.

본인의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찬찬히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영역별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별고사와 서류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철민 시민기자·송덕교 교사>

## 수능 영어 수준별 유형 폐지 통합형 전환

###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대 이자경감

#### 이달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올해 11월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는 수준별 유형(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전환된다.

또 금리 7%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올 하반기에는 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7월부터 바뀌는 교육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제 폐지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마련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맞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한다.

출제 범위는 '영어 I', '영어 II'이며, 총 문항 수는 중전과 같이 45개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17개로 5개 줄었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쉬운 수능 영어 출제'를 핵심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완도 군외초등생들과 NIE 교육  
와 언론·기자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연평균 25만5000원 정도 줄어든 전망이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등의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

1% 수준이고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갈아타게 되면 대출자 1인당 연간 25만5000원의 이자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7분위 이하가 대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상환의 무가 유예된다. 전환대출은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13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청다룩다슬기전문점

두암동 883-9 우리들병원 뒤  
다슬기수제비 다슬기해장국  
다슬기비빔밥 등  
대표 전전화 ☎062)269-9889

#### 필인쇄디자인

동구 금동 35-5번지  
인쇄전문  
출판디자인전문  
대표 전전화 ☎062)228-6335

#### 국제사

동구 남동 175-5번지  
디지털컬러, 흑백인쇄  
실사출력  
대표 최원호 ☎062)226-9357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062)224-7687, 010-2811-7687

####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충정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점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 하심사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원광신협앞골목)  
미음치유, 몸치유  
대표 무현스님 ☎062)236-5210

#### 토산철학원

두암동 837-19 두암에덴병원정문옆  
이름, 감정,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진로상담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두걸음직업소개소

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대표 조창욱 ☎062)263-3862

#### 낙지한마당

동구 대의동 69-3 (동부경찰서앞)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산낙지  
☎062)225-1171

#### 올리브반찬도시락

그날그날프리화장스런반찬과  
직접담은국내산김치로정성스럽게준비  
병원, 사무실, 공장, 학원, 기타모든연중  
☎062)225-2810, 010-9856-0662

#### 광남기업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입구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  
대표 이경규 ☎062)263-0036

####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번지  
신버디장어, 돌판볶음  
꾸꾸미참숯구이  
대표 이재신 ☎062)234-7942

#### 골든보석

북구 우산동187-8(말비우측산농협건너편)  
예술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 등촌

동구 충장로1가 4번지  
샤브샤브전문점  
대표 김복현 ☎062)227-7734

#### 김용만국수집

동구 금남로1가 19 (YMCA1층)  
맛국수, 콩국수  
김용만국수전문옛날국수  
대표 정인순 ☎062)236-3533

#### 뚝임이아구찜

동구 금남로3가 13-4 (제일은행릿골목)  
아구찜, 백반, 낙지백숙  
창국장, 전통웰빙식품  
대표 홍안순 ☎062)233-1919

#### 광주화랑

궁동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대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 우먼로드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장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  
☎062)524-8737

####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우리밀빵

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 51호  
(분수대아래실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 TV스토리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증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 1년무상A/S  
☎010)5540-4568